

## 시카고가 좋다

**파**사디나, 캘리포니아에 와 있습니다. 미루어 두었던 논문을 마감하려고 논문지도를 받으며 정리하고 있습니다. 2012 년 가을에 시작했던 공부였고,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충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논문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. 코스웍을 마친 후, 논문을 통해 목회계획을 세워보라는 조언에 솔깃하여 시작한 것이 막바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. 수업을 들으러 급하게 왔다가 돌아갔던 때와는 달리 숙소와 도서관을 오가며 느끼는 영성과 감흥이 있습니다. 설립 70 주년을 넘긴 홀러신학교가 재정란을 겪으며 조만간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.

**홀**러신학교가 있는 파사디나에서 3 마일 떨어진 알타디나에 숙소를 구했습니다. 지저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깨끗하다고도 할 수 없는 낡은 방에 침대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. 시카고의 시차를 따라 생활하고 있는데, 뒷마당의 개 짖는 소리와 에어컨 소음과 추위, 그리고 저의 기침소리에 자다가 두세번은 깹니다. 가끔 산에서 곰이 내려온다던데 그래서 백야드마다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개를 키우나 봅니다. 이 곳은 플라스틱백 한 장당 10 센트를 부가하더군요. 세 장의 백을 버리지 않고 아껴서 씁니다. 중부에 없는 산이 코 앞에 있습니다.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고 가며 바라만 봅니다.

**남**가주에만 약 1,100 개의 한인교회가 있고, LA 에만 300 개가 있다고 하는데,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스럽네요. 시카고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을 고민을 이곳에선 하게 됩니다. 벌써 9 월입니다. 본격적인 가을 사역이 시작되면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준비하는 4 사분기에 교회를 비우게 되서 마음 한 켠에 부담이 됩니다. 나와보니 시카고가 좋습니다. 플라스틱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, 밤에 개 짖는 소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. 시카고엔 가족과 교회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늘이 있으니까요. 제가 없는 동안 가족과 교회를 부탁드립니다. 금요일에 뵈게요.

2019. 9.1. 임철성 목사 올림